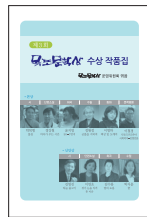




1회



2회



3회



4회



5회



6회



7회



8회



9회

2018

제10회 목포문학상 수상작품집

본 상

시 김 흠 | 갯바위를 반조하다
 동시 방승희 | 영산강 이야기
 수필 양승희 | 유달산을 걸으며 책 듣기
 소설 이서안 | 풍경
 희곡 황석하 | 가마가 있는 마을에 흠이 숨 쉰다

남도작가상

시조 고정선 | 목포 어디쯤 아직도
 동시 이병언 | 까치밥
 수필 김정순 | 노래에 담긴 목포
 소설 강성오 | 전어도시

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

목포문학관 소개

시원한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갯바위문화타운에 위치한 목포문학관은 대지 2,825.94㎡, 지상 2층 건물로 1층 박화성관, 차범석관, 2층 김우진관, 김현관으로 꾸며졌다. 작가들의 육필원고, 유품 등을 전시한 상설전시관 외에도 문학인사랑방, 문학창작실, 문학체험관,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. 문학관 주변으로 박화성, 김현 등 문인들의 문학비, 시화를 전시한 야외갤러리를 둘러볼 수 있다.



김우진관은 희곡, 시, 소설, 평론 등의 친필원고를 비롯해 5개국 대사관의 서기관을 역임한 부친 김성규의 유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.



박화성관은 기존의 박화성기념관이 옮겨와 친필원고, 대표저서, 작품 속 소설 공간 및 선생이 쓰시던 서재와 안방 등을 복원, 전시하고 있다.



차범석관은 국내에서는 최초의 극작가 전시관으로 국내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연극과 관련한 다양한 친필원고, 대본, 공연포스터 등이 전시되어있다.



김현관은 친필원고, 생활유품 등 생전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김현의 방과 지인들이 그려준 김현의 모습, 김현 문학을 엿볼 수 있는 검색대 및 어록 등을 둘러볼 수 있다.